

# “불자의 길에 나이·국경 상관 없어요”

## 조계사 이백법회 ‘눈길’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에 이백법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10월 6일에는 유아 수기(授記) 법회가, 7일에는 이주노동자 수계법회가 각각 봉행됐다. 조계사 창건기념주간으로 열린 두 법회는 포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아 수기법회=“성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뜨게 하옵시고 배움에 철저하고 언행이 일치하며 지난날을 거울삼아 오늘에 충실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미래를 개척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신념 있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소서.”

10월 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유아들이 대거 등장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는 유아들도 있었지만 품에 안긴 유아들도 보였다. 이날 150여 유아들이 전제사신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에게 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0여명의 임신부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계를 받아 화제가 됐다.

법회는 <본생담> 등에 나오는 마정수기(摩頂授記) 형식을 재현했다. 마정수기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그대는 미래에 뭐가 되리라고 예언하면서 제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진다는 뜻이다.

원담 스님은 유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 뒤 “좋은 불보살님이 되세요”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일 새벽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받아온 청수(淸水)를 이용해 검지로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유아에게 마정수기 의식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이주노동자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동우 기자>

유아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세 번 닦았다. 또 손가락 끝에 묻은 청수를 머리에 가볍게 뿌렸다. 몇 명 유아들은 새로운 경험에 놀라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계사 스님들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을 기념해 계를 받은 유아들에게 오색실을 손목에 감아주었다. 원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유아들에게 부처님의 선근 인연을 맺게 해 주 기쁘다”며 “1년에 두 차례 정도 유아 수기법회를 봉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수계법회=10월 7일 서울 조계사에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했다. 이주노동자 수계법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몽고 티베트 방글라데시 등 300여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전제사로서 계를 받았다.

## 주지 원담 스님, 유아 150여 명에 ‘마정수기’ 형식 재현 이주노동자 300여 명 청화 스님에게 받고 ‘불자의 길’로

주지 원담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말씀처럼 신앙의 힘으로 거칠고 고된 일들을 버려내고 또한 정진과 근면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명실 공히 한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불교 지원단체협의회 회장 보림 스님은 “오늘 수계법회를 통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져 계행이 청정하고 마음이 안정돼 한국 생활에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대신했다.

이날 스리랑카 우빨 라베나사, 네팔 나왕

덴진, 방글라데시 헤밀론, 몽골 몽크 닛산, 미얀마 무뎃화씨가 참석자들 대표로 계첩을 받았다.

나랜드라 구름 네팔 불자모임 회장은 “항상 고향의 가족과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부처님의 제자됨을 기쁘하게 해 줄 것”을 발원했다.

수계법회 후 조계사 경내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 진료, 미용서비스, 은행계좌 서비스 등이 이뤄졌으며 체험마당, 공연마당과 함께 미얀마 민중화를 위한 이주노동자 손도장 찍기 행사가 진행됐다.

남동우 기자



## 조계종 총무원 새 부장단 임명

총무원장·재무장적·사회세영·호법정만 스님

조계종 새 총무원장에 원학, 재무 부장에 장적, 사회부장에 세영, 호법부장에 정만 스님(사진 맨 왼쪽부터 차례로)이 10월 9일 임명됐다.

원학 스님은 1965년 사미계, 7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연화사와 용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77년 사미계, 78년 구족계를 수지한 장적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다. 12·13·14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홍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세영 스님은 1976년 사미계, 8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

가대학을 졸업했으며 만기사와 수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여주 신복사 주지.

1977년 사미계, 79년 구족계를 수지한 정만 스님은 불국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제12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종단 안팎으로 시끄러운 만큼 기도하는 정심으로 종단을 안정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원학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종단을 안정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 개설

10월 29일부터 4일간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안암동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제1회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을 개설한다.

연수는 고우(조계종 원로의원)·무여(봉화 축서사 선원장)스님의 특강과 실우(정주 법인정사 선원장)·월암(현양 벽송사 선주)·원철(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스님을 교수사로 한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총10주)을 위주로 진행된다.

연수 참가를 원하는 스님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교육원(02-2011-1807-9)으로 접수하면 된다. 4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연수비는 10만원.

연수를 이수한 스님 중 종직 사찰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경우 올해 본·말사 주지연수를 대체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이번 연수는 신도지도(간화선 지도)를 하고자 하는 본·말사 주지스님 또는 종단스님들께 체계적인 지도프로그램과 지도방법을 제시하며 스님들의 수행정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연수 목표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 제19회 포교대상 후보자 접수

조계종 포교원은 제19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분야는 △계종(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직능(군, 경찰, 직장직능 등) △문화체육(미술,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사회(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매체(방

송·연론, 출판, 인쇄, 인터넷 등) △신행(교육, 수행, 신도조직 및 활동 등) 등.

추천은 조계종 중앙총무기과장 및 교구본사 주지스님이나 종단등록 포교·신도단체장이 할 수 있다. 종단 소속 기관 및 단체와 종단 소속 스님, 종단 신도등록대상자로서 5년 이상 20년 이상 활동한 불자면 추천 가능 하다.

남동우 기자

## 미륵종 승려교육 수료식 개최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제9차 승려교육 수료식 및 제9기 사미(니)계 산림법회를 10월 10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봉행했다. 2박 3일간 진행된 교육에는 120여명이 동참했으며 사미(니)계 산림법회에서는 사미 20명과 사미니 5명이 입교해

소정의 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미륵종은 총무원 직제를 개편, 신설된 사서실장에 거창 학천사 주지 백산 스님을 임명했다. 또 부산 교구 총무원장에 해광사 부산포교원 주지 혜성 스님을, 경기 강원 교구 총무원장에 경기도 광주 대불사 주지 혜능 스님을 임명했다.

영민 경남 서부지사장

I Love Buddha /방화작

용정운(www.zenoon.com)

남보다 많이 가지려 하고...

남보다 높이 오르려 하니...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는가...

피로우면 그냥... 놓아버려 되는 것을...

# 태(胎)중 아기(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전도전문도량 약천사 약천사 양력 10월 20일(토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는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음, 9월 10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조재) : 양력 10월 20일 (음, 9월 10일)
- 3재 : 양력 11월 3일(음, 9월 24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2월 1일 (음, 10월 22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당)
  - ※ 위폐비, 아가웃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 7계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치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사들 시는게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성에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문 협장 02)3391-8523 / 011-9002-8523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에 **마미로봇**

Mamirobot **KM** (주)경인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http://www.mamirobot.co.kr)

₩275,000(소비자가격) |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창승리)